

이음, 제주

주민을 잇고 동네를 잇다

TRACK. 13



Special Theme

책을 읽다, 사람과 동네를 잇다

다시, 잇다

김영수도서관, 도시재생의 마중물

다시, 보다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다 무사시노 플레이스

다시, 들다

원도심 안에 위치한 책방지기들과 나눈 인터뷰

BOOKSTORE

BOOKS

BOOKS

#BOOK

CONTENTS



원도심 도서관, 책방 안내 지도

- 다시, 잇다
- 4 도서관, 도시재생의 마중물
- 8 김영수도서관 재개관식 현장에 가다
- 10 김영수도서관 책을 처방합니다
- 12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긴데요

- 다시, 보다
- 14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동네 도서관, 무사시노 플레이스

- 다시, 듣다
- 16 주민을 품다, 제주책방(구 고씨주택)
원도심 안에 위치한 책방지기들과 나눈 인터뷰
- 18 우생당
- 20 동림당
- 22 미래책방
- 23 여럿이 함께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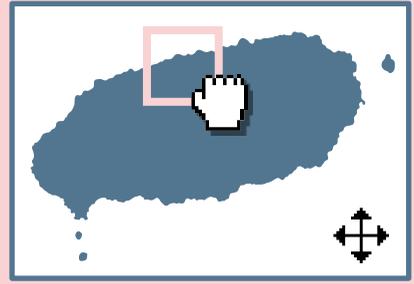
- GUIDE
- 24 원도심에서 뭐하지?

- NEWS
- 25 맛있는 주민 소통 프로젝트, 케앗
- 26 주민에서 도시재생전문가로 활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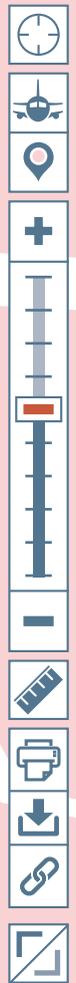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6월 28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발행인 부성현 편집인 이재근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줘드 (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름,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김영수도서관 👉 8p
- 제주책방 👉 16p
- 우생당 👉 18p
- 동림당 👉 20p
- 미래책방 👉 22p
- 성짓골작은도서관 👉 23p



다시,



도서관, 도시재생의 마중물

제주시 원도심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김영수도서관이
재개관했다.
도시재생이 본격화된 원도심에
희망의 싹이 되길 기대해본다.

아이들이 책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제주북초등학교에 문을 열었다. 바로 김영수도서관이다. 개관 직후 50년간 학교 도서관으로만 운영하던 도서관을 학교와 마을, 행정의 노력으로 5월 31일 재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개방했다. 김영수도서관은 연면적 365.03㎡, 지상 2층 건물이다. 1층 열람실에 들어서면 마치 기와집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듯한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띈다. 한 평 남짓한 방 5개가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구조로 문을 모두 열면 하나의 큰방으로 변신한다. 표준화된 아파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옥이 주는 편안함과 기분 좋은 공간감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동네사랑방이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1층 계단서가 역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공간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 2층 열람실로 올라가면 커다란 파노라마 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제주목관이야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창을 통해 아이들은 망경루, 벚꽃 등 아름다운 자연을 곁에 두고 맘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 옥상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동굴 같은 화장실, 기와를 엮은 담장, 계단 밑 비밀 방

등 도서관 곳곳이 비밀 아지트이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준다.

도서관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북초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 도서관으로 운영되지만,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된다.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마을 도서관 운영시간에는 그림책 읽어주기, 가족 책방, 책 보따리, 도서관 부모교실, 원도심 문화학교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마을 도서관 운영 시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서관 활동가들이 독서지도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이 학부모들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영수도서관 재개관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이들과 손잡고 갈 수 있는 마을도서관이 생겼다는 것과 더불어 원도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원도심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 중 하나인 도서관은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데 중요한 마중물인 셈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김영수도서관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진짜 마중물로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 후 도서관에 들러 매일 책을 읽는 아이들, 퇴근 후 잠시라도 책을 읽고 가는 어른들, 주말마다 아이 손 잡고 도서관을 찾는 가족,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대화하는 마을 주민들, 그 아름다운 동행이 매일매일, 이 도서관에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 🕒 운영시간 학교 도서관 8:30~17:00(월~금) 재학생, 교직원만 이용 가능
마을 도서관 17:00~21:00(월~금) 10:00~18:00(주말) 누구나 이용 가능
- 📄 휴 관 일 학교 도서관, 법정 공휴일, 재량 휴업일, 장서점검 등
마을 도서관, 매주 화요일 정기 휴관, 설날 및 추석 연휴,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날
- 👤 이용안내 열람 및 입장은 방문객 누구나 가능
- 👤 대출안내 정회원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김영수도서관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진짜 마중물로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도서관 재개관식 현장에 가다

김영수도서관이 마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재개관 행사가 열렸다. 뜨거웠던 행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도서관 앞마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메시지가 저마다 담긴 우산이 가장 먼저 반겼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우산을 활용한 희망의 메시지 소개, 도서관의 설계를 맡은 권정우 탐라지에 소장에 대한 교육감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다. 이어 김효은 캘리그라피 작가의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캘리그라피 공연은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면서 아름다웠다. 학생들도 신기하다는 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공연을 감상하였다. 한편, 김영수도서관 1층 한옥방에서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유치원 어린이 다도'가 진행되었다. 마을의 주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 한복을 입어

지난 5월 31일
학교 도서관에서
마을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연 김영수도서관
재개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끝이 났지만,
김영수도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을에
문을 활짝 연
김영수도서관에 이번
주말 방문해 보는 건
어떨지.



보고, 다도 교육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경험하는 다도 교육이 재미있다는 듯 연신 방긋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러웠다. 도서관 곳곳에는 캘리그라피와 제주어가 만나 아름다운 글 꽃을 피운 '글 그림 꽃' 전시도 만나 볼 수 있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갈 즈음 마지막 행사인 '음악으로 듣는 김영수 도서관'이 시작되었다. 도서관 기증자이자 제주북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인 재일 기업인故김영수씨의 이야기를 임정진 동화작가의 그림과 퓨전국악공연팀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들려 준 공연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웠던 공연이었다. 더불어 재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점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는 끝이 났지만, 김영수도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을에 문을 활짝 연 김영수도서관에 이번 주말 방문해 보는 건 어떨지.



처 방 전

책

김영수도서관
책을 처방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아침 (✓) 점심 (✓) 저녁 (✓)

성예 부쩍 호기심이 많아진 5-7살 아이에게 이해하기 쉬운 성교육 책은?

♥ 책처방 1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



'나'는 여자고 동생은 남자다. 왜 남자와 여자의 몸은 다를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달라지는 여자와 남자의 신체에 호기심을 갖는다. 또한, 고추와 잠자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기를 만들 소중한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람들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답변을 해주는 것은 성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말로 설명이 힘든 경우 책을 통해 아이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사실을 기억하자. 정지영 글 · 그림 | 비룡소

👍 남자와 여자 신체에 유독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추천

♥ 책처방 2 내 동생이 태어났어



갓난아기인 동생을 보며 '나'는 갓난아기 전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 엄마 뱃속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이며, 생물학적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존재의 소중함도 함께 일깨운다. 작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호기심이 거부되기보다는 엄마와 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책을 통해 이야기한다. 정지영 글 · 그림 | 비룡소

👍 생명 탄생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추천

남들 보다 까만 내 피부가 싫어요. 매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면...

♥ 책처방 왜 나만 달라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른 의견이나 모습일 때면 친구들과 비슷해지려고 무척 신경을 쓴다. 가끔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도 한다. '왜 나만 달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그림책이다. 똑같은 배경 속에서 나만의 모습을 찾아가는 강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어른들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린 비델프 글 · 그림 | 신지호 옮김 | 한림출판사

👍 우리 아이에게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개성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면 추천

아이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줄지 고민인 부모를 위한 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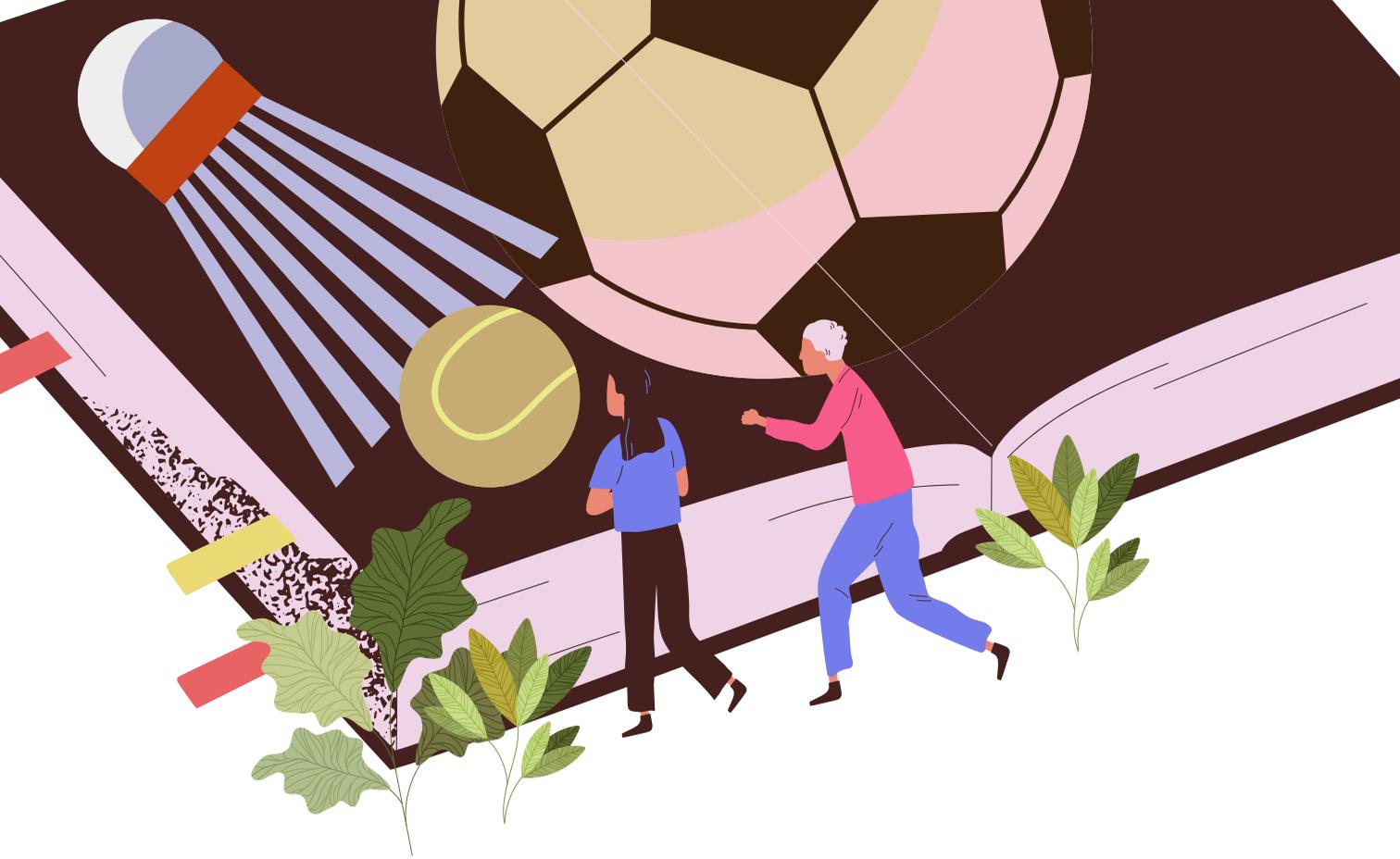
♥ 책처방 책 읽어주는 기적



'책 읽기'가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부모는 없다. 책 읽기는 학습능력은 물론이고, 인성과 사회성까지 길러주는 최고의 교육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고심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읽기가 가져올 기적, 책 읽어주기 실천법, 베드타임, 책 읽어주기의 힘 등 초등 저학년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책 읽어주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책 읽어주기를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추천 도서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임영주 지음 | 노란우산

👍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 주고 싶은 부모라면 필독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긴데요

집 가까이 도서관이 생기고 쉽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생긴다면? 당연히 삶의 질은 높아지겠죠?
내가 사는 동네가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 되는 정책, 바로 생활SOC

정부는 2019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50% 증가한 8조 7천억원을 투자한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생활SOC란 무엇일까?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의 약자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뜻한다. 생활SOC는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 시설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 인프라와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고, 체육관이 생기는 걸 말한다. 퇴근 후, 집에서 10분 거리에 국

민체육센터가 생겨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방과 후, 책 읽으러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생겨 공기가 깨끗해지는 등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SOC다.

생활SOC는 경제활동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을 1,400개, 공공도서관을 1,200개로 늘린다고 한다.

그중 문화 콘텐츠의 속성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책,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의 확장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다. 책은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과 삶에 가치를 두고 소통하게 한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곳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며 이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지적탐구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것이다. 책을 매개로 만들어진 문화공간 중 하나가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실을 기억하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주축으로 주민과 민관이 함께 노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가 많이 생기길 응원한다.

다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동네 도서관, 무사시노 플레이스 Musashino Place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음제주 14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있다.
일본의 공공도서관 무사시노 플레이스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을 품고 있는
무사시노 플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참고 자료 : 가재울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일본 도서관 방문 결과보고서

보다

도쿄도 무사시노 시에 위치한 '사람 · 거리 · 정보창조관 무사시노 플레이스'(이하 무사시노 플레이스)는 도서관의 기능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슬로건처럼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마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곳이다.

무사시노 플레이스는 도서관 서비스를 비롯해 평생학습, 시민활동,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장서 수도 약 17만여 권, 소장 잡지 약 600여 종으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무사시노 플레이스는 지상 4층과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고 펼쳐지는 공간 브라우징을 통해 기능 간 융합을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하나의 방에 들어가면 마치 거리나 광장을 걷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다음 방으로 회유(回遊)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원래 이용목적 이외에 새로운 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눈에 거북 만한 공간은 지하 2층 청소년 전용공간,

틴즈 스튜디오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부 · 독서 · 놀이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튜디오 라운지를 비롯해 음악, 춤, 공작, 요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틴즈 스튜디오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학생들끼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가벼운 상담에 응하거나 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상담사업,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강좌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청소년 요청 기획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사업기획부터 실시 운영까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고 있다.

무사시노 플레이스의 청소년 전용공간이 갖는 의미는 또래 친구들끼리의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관 초기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 하거나 책을 읽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첫 해가 지나고 스터디 그룹에서 친구를 사귀고, 게임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직원들도 이런 활동을 장려했다. 일례로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숙

제를 돕기 시작하자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문화 활동으로 연결한 것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머물 수 있는 창조적인 놀이터인 셈이다.

더불어 도서관을 기반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과 연구도 지원한다. 다양한 연령의 세대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애학습, 지역의 교육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생애학습에 관계되는 강좌, 사업 기획,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과 커뮤니티 그룹을 위한 공간,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도 지원한다. 이처럼 무사시노 플레이스는 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도서관을 유지하는 힘은 아마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한다.

우리 동네 도서관 역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교와 마을,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음제주 16



주민을 품다 제주책방(구 고씨주택)

원도심 안에 작은 주민공간이 생겼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고씨주택 이야기다.
개방형 공간으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제주책방을 만나보자.

플러미



오랜 세월 제주의 과거와 현재가 작은 기억들로 연결된 곳이 있다. 바로 고씨주택이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곳은, 탐라문화광장 조성때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들의 보존운동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1월 복원되었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유공간인 제주책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책방은 지상 1층, 안거리(76.03㎡), 밖거리(33.05㎡)로 이뤄져 있다. 안거리는 누구나 쉽게 와서 쉴 수 있는 제주사랑방으로, 각종 사진 및 자료 전시, 교육, 회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 4월 강만보 작가의 사진강좌 프

로그램이 제주사랑방에서 진행되었다. 원도심 사진강좌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의는 카메라 이해하기, 빛 이해하기 등 이론 수업과 원도심 지역 출사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닫혀 있던 문을 활짝 열고 원도심의 주민공간으로 돌아온 고씨주택의 변신이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안거리가 사랑방이라면 밖거리는 제주책방으로 조성됐다. 이곳은 행정기관 및 민간에서 발간된 제주관련 책자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쪽마루에 앉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원도심 속 오아시스로도 충분하다. 고즈넉한 옛 가옥

의 정취는 덤이다.

제주책방에 주민들이 모이고 있다.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 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주민이 모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새로이 문을 연 제주책방이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기능이 공존하는 주민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본다.

📍 주 소 제주시 관덕로 17길 27-1번지
⌚ 운영시간 연중무휴 12:00~20:00
📖 휴 관 일 설 추석 연휴 휴관
☎ 임시대관안내 064-727-0613

원도심 안에 위치한 책방지기들과 나눈 인터뷰



우생당은 제주도 1호 서점이다. 제주 서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사만큼 스쳐간 사람도 사연도 많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분들이 아직도 서점을 운영하며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백년가게 만드세요”라는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면 보람을 느껴요.

우생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아들에게 대를 이어 운영을 하고 있다. 서점이 불황인 시대에 대를 이어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결심한 계기

가 있나요? 저는 성장과정에서 ‘우생당 아들’로 불리며 자랐어요. 그 당시 서점은 활황이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했죠.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의 잦은 병환으로 아버지께서 간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생당 아들’에서 ‘우생당 사장’으로 역할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책방 이름은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의 삶을 수식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책방 이름을 우생당으로 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友(벗 우), 生(날생), 당(堂).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입

니다. '친구가 생기는 집'이라는 뜻인데, 참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당시 교육의원도 역임하시면서,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셨어요. 우생당 운영뿐만 아니라, 우생출판사를 설립해서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문학인들의 사랑방 역할 및 출판 지원사업도 많이 하셨어요. 계몽록 선생님을 지원하셨던 내용들은 지역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어요.

책방을 찾는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요?

저희 서점은 제주시 원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원도심 특성상 어르신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해도 제주시 내 가장 중심가였죠. 그러나,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제주에서 정주민구 및 학생이 가장 적은 동네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고서 매출은 타 지역 서점보다는 비중이 낮아요.

인접한 거리에 독립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없습니니다. 독립서점은 독립서점대로 기능을 하고, 동네서점(지역서점)은 그 자체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립서점은 장서보유의 한계가 있고, 동네서점은 문화기획 한계가 있어요. 독립서점의 운영방식이나 문화 행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점간의 소통과 유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시서점조합이 있어요. 독립서점이 아닌 저희 같은 지역서점 모임인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서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혹시 다양한 작가 및 독자와 교류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현재는 없습니다. 독자와 교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로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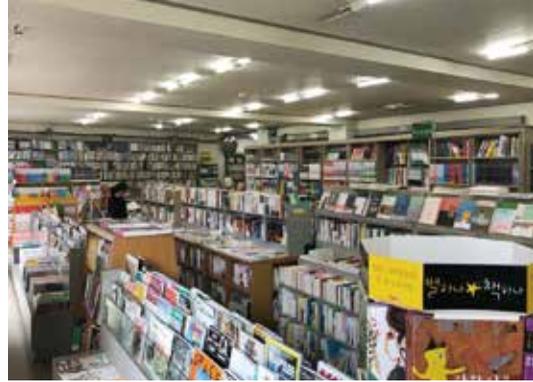
단순히 책방은 책만을 파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우생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우생당, 친구가 생기는 집, 책이 친구가 되고, 책을

매개로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공간, 상호 그 대로를 실현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과제예요. 어쭙잡은 기획 능력으로, 흥내내기식 문화공간,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학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학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속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재정적 어려움과 영세함을 겪는 것들이 동네서점,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생당 또한 소매점 매출은 10% 정도도 안됩니다. 오히려 참고서 도매 매출이 90%예요. 그래서 참고서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네서점인 우생당의 지역내 문화공간 기능은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예요. 같은 동네서점들도 매년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동네서점+독립서점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과제죠.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동네서점 운영하는 분들도 그냥 예산 한번 받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장기적인 자금지원 같은 제도가 실효적이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꿈꾸고 있는 책방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1,2층 이었던 매장을 1층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2층은 현재 어떠한 임대계획도 없습니다. 책과 연관된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공부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생당의 오래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자주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주 소 제주 제주시 관덕로 42
 운영시간 9:00~21:30
 휴 일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전화번호 064-722-2107



책방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일 중에 왜 헌책방을 운영하게 되었나요? 어려서부터 헌책을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책을 계속 모았고, 중국 유학 시절(약 8년여)에는 매 주말이면 베이징에 있는 고서점들을 순례하면서 책들을 모았어요. 집안이 온통 책으로 채워졌을 즈음에 반상회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아파트 무너질까 겁이 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죠. 그 무렵부터 집안 식구들이 밖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 헌책 좋아하는 분들에게 책도 팔고 그분들과 수도도 떠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만든 게 이 헌책방 동림당입니다.

책방 이름은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의 삶을 수식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책방 이름을 동림당으로 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책방 이름을 지을 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건 두 가지였어요.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우리 책방 이름이 '누구누구네 집에서 하는 헌책방'이라는 뜻을 담아야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어요. 아들에게서 '동녘 동(東)', 딸에게서 '수풀 림(林)',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집이라는 뜻에서 '집 당(堂)' 이렇게요.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중국 명나라 말기 환관들의 득세로 야기된 정치적 문란과 사회적 혼란을 바로 잡으려 정치 운동을 했던 봉당이자 학파의 이름입니다.

책방을 찾는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요? 도민과 관광객이 반반 정도예요. 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추억 만들기 차원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헌책방이란 특성상 자료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북 카페나 호텔 등에 비치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 박물관, 기념관 등의 전시나 연구를 위해 기관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헌책, 중고책의 힘은 무엇인가요? 헌책방의 '존재 의미'는 세상에 한 번 나왔다 사라지는 수많은 책이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하는데 있다고 봐요. 저희 같은 헌책방들이 없으면 한번 버려진 책들은 책으로서의 수명을 다하

고 폐기되어 골판지 등으로 재생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서점은 책에 내포된 가치관이나 문화양식을 재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책 판매 외에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나 의미를 두고 있는 일이 있나요? 테마별 전시회(전시 도서 경매회 포함)를 기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자 친필 서명본이나 초판본, 절판본, 잡지 창간호나 폐간호 전시 등과 같은 단순 기획부터 제주지역을 테마로 한 작품전, 작가들의 육필 원고, 책에 수록된 삽화 원화, 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획전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책방에 위치한 건물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상설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재정적 어려움과 영세함을 겪는 것들이 동네서점,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지난 4월에 제주 북페어 행사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과 서점 주인들이 참여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생긴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 서점이 140여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공간과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영세서점들이 각자의 개성을 꽃피우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도나 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책방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책방에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분야별로 나눠 전문 헌책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파트별로 분양할 계획도 있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헌책방 000 1, 2, 3... 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는 헌책방 동림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주 소 제주시 관덕로 2길 24, 지하 1층
 ☎ 운영시간 13:00~20:00 (전화 후 방문)
 ☹ 휴 일 일요일
 ☎ 전화번호 070-8289-3631



장성현 촬영

著者 玄基榮

- 1941년 제주 출생.
- 오현고·서울대 사대 영어과 졸업
-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로 문단 데뷔.
- 1979년 작품집 「離伊山촌」(창작과비평사) 간행.

玄基榮 著
李基榮 譯

미래책방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점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잖아요. 제주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를 발
견하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책방을 찾는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요?
공항과 가깝고 인근에 유명한 카페가 있기 때
문에 관광객이 많은 편입니다. 20-30대 여성
분들이 주로 오고 책방의 연식이 쌓일수록 도
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인접한 거리에 독립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있지만 생긴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생긴다면 차별화된
컨셉의 책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책방간의 소통과 유대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나요?** 제주가 생각보다 큰 섬이라서
읍이나 면 단위에 있는 책방 사장님들과는 인
스타나 가끔 있는 마켓에서 인사하는 편이고
요, 인근에 있는 라이킷 사장님과는 비교적 자
주 연락하고 지내는 편입니다. 지속적인 모임
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순히 책방은 책만을 파는 곳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
결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미래책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책이라
는 물건의 특성상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문화
공간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책을 파는 역할, 책
또는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방법

을 고민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재정적 어려움과
영세함을 겪는 것들이 동네서점,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
합니다. 책방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책방도 역시
장사이기 때문에 책방에 오셔서 좋은 책을 발
견하셨다면 사진만 찍지 마시고 책을 꼭 사주
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책방 운영에 큰 도
움이 됩니다.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출판물이나
작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최근 읽고 입고
한 현아선 작가의 diver 그림책이요. 해녀 이야
기를 다룬 책은 많이 있지만, 해녀라는 직업적
특성보다 해녀라는 '사람'을 그려낸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꿈꾸고 있는 책방의 모습
을 말씀해 주세요.** 책을 파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려고 해요. 가게에서 오는 손님을 기다
리는 것이 첫 번째지만, 책방 운영으로 밥벌이
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꿈꾸는 책방은 오래 살아
남아 있는 책방이에요.

- 📍 주 소 제주시 관덕로 4길 3
- 🕒 운영시간 12:00-19:00
- 📅 휴 일 목요일(때때로 수요일도)
- ☎ 전화번호 010-3656-1753
- 📱 인스타 아이디 mirai_books





여럿이 함께 가는 길

무근성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마을에 활력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성짓골작은도서관으로 안내한다.

마을 도서관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독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그곳을 찾아 책을 읽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자 즐거운 놀이가 될 것이다.

제주 원도심 안에 위치한 무근성 마을에 2019년 3월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무근성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 성짓골작은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도서관은 사서 1명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동가 3명이 함께 운영 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을 도서관 활동가 양성, 북스타트 독서모임, 생각을 공유하고 책이 주는 가치를 알아보는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바농그림 꼬물꼬물 바느질 놀이터,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청소년 인문학, 글쓰기 특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성짓골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사랑방의 역할 또한 독특히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창단한 성짓골소리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성짓골도서관에 모여 연습을 한다. 북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쫓꼴락합창단 역시 매주 토요일 이곳에 모여 합창 연습을 진행한다. 이처럼 주민 소통공간으로, 크고 작은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성짓골도서관은 도서관을 사용할 주체인 지역 주민과 함께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길 기대해본다.

-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9
- 🕒 **운영시간** 10:00~18:00
- 📅 **휴 관 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 **전화번호** 064-723-0025
- 📖 **자료이용** 관내열람은 누구나 가능, 도서대출 및 다양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필수
- 📚 **도서대출** 1인 대출권수 3권, 대출일 포함 14일

원도심에서 뭐하지?

놀이 좋은 날씨가. 뭘 하고 놀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해시태그로 떠나는 원도심 투어.



❤️ 💬 📍 📌
#관덕정_분식 #간세라운지 #떡볶이맛집
 관덕정 분식은 간세라운지에 위치한 우유부단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오픈한 분식집이다. 대표 메뉴 떡볶이를 비롯해 아란치니, 한치튀김, 유부주먹밥 등 퓨전한식을 선보인다. 원도심을 거닐다 출출해질 때쯤 이곳을 방문한다면 기분 좋은 한끼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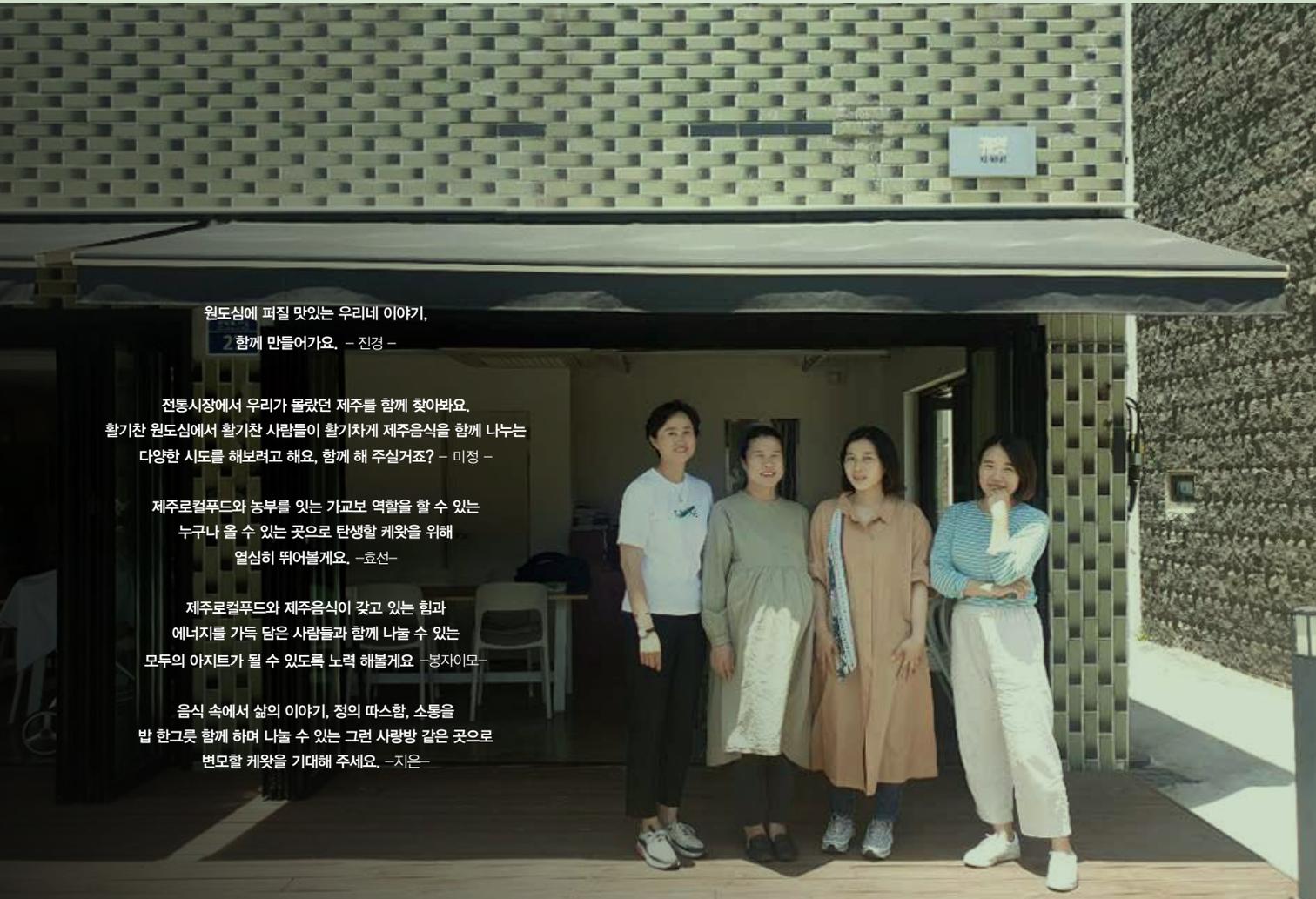
❤️ 💬 📍 📌
#예술공간_이아 #예술어렵지않아요 #생활속아트
 옛 제주대학 병원이 예술을 품고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예술공간 이아이다. 이곳에서는 작가들의 전시를 비롯해 창작스튜디오, 생활예술아카데미,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 💬 📍 📌
#순아커피 #일본식전통가옥 #사진찍기놀이
 100년 일본 가옥을 그대로 유지해 카페로 재탄생한 순아커피.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 간 기분이다. 벽이며 천정, 소품 하나하나 모두 옛 그대로다.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찍어도 그럴듯한 사진을 건질 수 있으니 이번 주말 친구와 함께 놀러 가도 좋을 것 같다



❤️ 💬 📍 📌
#모퉁이_옷장 #빈티지천국 #독특한디자인 #독템하자
 빈티지 특유의 '갬성'으로 무장한 모퉁이 옷장. 이효리 단골 매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마치 보물 창고를 하듯 구제 옷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구제 옷을 비롯해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구제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원도심에 퍼질 맛있는 우리네 이야기.

함께 만들어가요. -진경-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몰랐던 제주를 함께 찾아봐요.
활기찬 원도심에서 활기찬 사람들이 활기차게 제주음식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함께 해 주실거죠? -미정-

제주로컬푸드와 농부를 잇는 가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탄생할 케왓을 위해
열심히 뛰어볼게요. -효선-

제주로컬푸드와 제주음식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득 담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두의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볼게요 -봉자이모-

음식 속에서 삶의 이야기, 정의 따스함, 소통을
밥 한그릇 함께 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으로
변모할 케왓을 기대해 주세요. -지은-

맛있는 주민 소통 프로젝트, 케왓

‘음식’을 주제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제주 원도심의 탐라문화광장 내에 있는 ‘케왓’이다.

케왓은 제주시 관덕로17길27(산지천갤러리 옆)에 위치하고 있다. 케왓은 제주어로 주민들이 마을의 아지를 확보하고, 지붕의 이음을 잇는 재료인 새를 심어 공급하는 ‘공동 경인지’를 말한다. 이곳에서 음식을 주민과 함께 연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길 바라며 케왓이라 이름 지었다. 작년 하반기에 삼다수의 사회공헌 사업과 행

안부의 국민해결 프로젝트 사업으로 4개월간 음식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가능성을 본 센터는 ‘케왓’이 상시 오픈하여 주민들에 의해 반짝일 수 있도록 본격적인 케왓 운영 계획을 세웠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연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운영자를 공개모집 했다. 평가결과 운영자에 ‘베지근연구소’가 선정됐다. 앞으로

‘베지근연구소’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힘을 모아 탐라문화광장의 작은 불씨를 일으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주소 제주시 관덕로 17길 27
이용안내 064-727-0619

베지근연구소는 제주로컬푸드와 제주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누구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주민에서 도시재생전문가로 활동하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이 제주 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도시재생대학은 제주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지 또는 선정지역 주민은 우선 참여 대상 교육이다. 본 교육은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기본 공통이론과정, 심화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공통이론과정은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3주간 6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수립방법, 부동산과 주거복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전략, 제주의 도시와 건축, 도시재생 뉴

딜의 거버넌스 등에 대한 열띤 강의가 이루어졌다.

문제해결과정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동이론과정 수료자 42명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 예정지역 주민협의체 주민 중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제주시 원도심, 제주시 건입동, 서귀포시 원도심, 3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별 담당 지도교수와 조교가 전담 운영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각 팀별 활성화지역 내 대상지 자원조사, 지역의 문제점 분석, 핵심사업 도출, 사업계획 작성 등이었고, 문제해결과정 마지막 시간에는 팀별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현안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육은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제주시 원도심팀

원도심 내 교육, 커뮤니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주초등학교, 제주 남초등학교와 연계한 스쿨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유휴지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 등에 적합한 도시농업 사업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제주시 건입동팀

건입동은 좁고 낙후된 골목길을 활용한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와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항과 건입동을 연결하는 임항로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서귀포시 원도심팀

중앙동을 중심으로 주차 및 상가 테마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걷기 좋은 길, 주민 센터, 골목상점 조성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번 교육의 성과물은 행정시와 공유하여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소규모 도시재생공모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은 18명의 졸업자가 배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계획을 직접 구상해보는 경험을 통해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센터는 이번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과정을 후속 교육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회성 교육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 일반지역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오래된 미래 모관,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
 사업유형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기간 2016~2020(5년)
 사업면적 약 929,095㎡
 총사업비 181.92억원(국비 90.96억원, 지방비 90.96억원)

원도심 활성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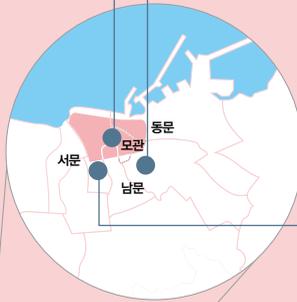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라는 모토하에
 제주시 원도심내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사업 진행
4대 목표 역사경관도시, 문화예술도시, 주민친화도시, 사회경제도시
주요사업 관덕정 주변 활성화사업, 도심올레 이야기길 사업,
 도시재생 상생마당 구축, 보행 가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창업 및 성장 자원인프라 구축 등
 7개 사업분야 15개 세부사업 진행.

뉴딜 제주시 신산머루(일도2동 일대)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사업기간 2018~2020(3년)
 사업면적 45,616㎡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33억원)

뉴딜 제주시 남성마을(삼도2동 일대)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주거지원형)
 사업기간 2019~2022(4년)
 사업면적 80,369.1㎡
 총사업비 141.7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



- 활성화 지역 선정
- 제외지역
-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뉴딜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 일대)

캔(CAN) 팩토리과 다시 사는 모슬포
 사업유형 일반근린형(근린재생형)
 사업기간 2019~2022(4년)
 사업면적 149,894㎡
 총사업비 142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7억원)

뉴딜 서귀포시 월평동(월평동 일대)

흔디 손심영! 지켜진 월평마을 만들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주거지원형)
 사업기간 2018~2021(4년)
 사업면적 111,528㎡
 총사업비 134.51억원(국비 77.63억원, 지방비 56.88억원)



* 2019.2 기준